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체계 대조 연구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킨뚜자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체계 대조 연구

지도교수 권 성 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킨뚜자

킨뚜자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주 심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권 성 미 (인)

목 차

Abstract	vi
I.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방법 및 범위	3
II. 선행연구	6
III.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대비	20
3.1 한국어의 자음 체계	20
3.2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21
3.3 한·미 자음 체계 대조	27
3.3.1 조음 위치	27
3.3.2 조음 방법	28
3.4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 습득 난이도	41
IV.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대비	46
4.1. 한국어의 모음 체계	46
4.1.1 단모음	46
4.1.2 이중모음	47
4.2.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47
4.2.1 단모음	50

4.2.2 이중모음	55
4.3. 한·미 모음 체계 대조	56
4.3.1. 단모음	57
4.3.2. 이중모음	61
4.4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습득 난이도	63
V. 결론	67
< 참고문헌 >	71



〈표 차례〉

〈표 1〉 미얀마어성조의 예	10
〈표 2〉 미얀마어의 음절구조의 예	10
〈표 3〉 미얀마어 자음의 목록과 로마자 표기	12
〈표 4〉 미얀마어 자음의 바뀐 형태	13
〈표 5〉 미얀마어 복합자음과 로마자 표기	14
〈표 6〉 미얀마어의 기본 모음과 로마자 표기	15
〈표 7〉 성조 가진 기본 모음과 로마자 표기	16
〈표 8〉 비모음과 로마자 표기	17
〈표 9〉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과 로마자 표기	18
〈표 10〉 한국어의 자음 체계	21
〈표 11〉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26
〈표 12〉 조음 위치별 자음 대조	28
〈표 13〉 조음 방법별 자음 목록	29
〈표 1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파열음 대조	29
〈표 15〉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마찰음 대조	33
〈표 16〉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파찰음 대조	35
〈표 17〉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비음 대조	37
〈표 18〉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음 대조	39
〈표 19〉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활음 대조	40
〈표 20〉 난이도의 계층도(Hierarchy of Difficulty)	43
〈표 2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에 대한 예측 결과	45
〈표 22〉 한국어의 단모음	46
〈표 23〉 한국어의 이중모음	47

<표 24> 미얀마어의 단모음과 비모음의 목록	49
<표 25>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	55
<표 26>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 대조	57
<표 27>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대조	62
<표 28>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에 대한 예측 결과	66



<그림 차례>

<그림 1> 미얀마어의 성조	9
<그림 2> 미얀마어의 단모음 삼각도	50
<그림 3> 미얀마어의 단모음 사각도	52
<그림 4>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사각도	56



A Comparative Study on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 and Myanmar Language

Khin Thuza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e study is to correct the pronunciation errors that occurred by the Myanmar learners of Korean who make a mix pronunciation influenced by mother language. Most of the Myanmar learners of Korean make a mix pronunciation because they try to adapt the Myanmar sound, a tonal language in Korean sound. That's why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system of vowels and consonants sounds between Korean and Myanmar. And also the paper is prepared to find out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wo languages which provide to correct the pronunciation errors and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pronunciation by using contrastive analysis method.

There are two parts of contrastive analysis, one part is based on the consonant sound system and the another is vowel sound system. In consonant sound system, it is found that not only the articulation place of Bilabial, Alveolar, Palatal, Velar and Glottal but also the Manner of Plosive, Affricate, Fricative, Nasal, Liquid and Glide are the same in both languages. The difference of articulation place is Dental and Post- Alveolar which exist only in Myanmar. And the number of Myanmar Fricative and Nasal is more than Korean.

And in the second part of the analysis, vowel system, it is found that / ɔ̃ /, n/, /i, u/ is common in both languages. The Myanmar learners easily make a pronunciation errors because the monophthong of /ɾ/, ɹ/, —/ exist in Korean but not in Myanmar,

with tone. Moreover, the number of diphthong in Korean(11) is more than Myanmar (8).

The expected errors that may occur in consonants are that the Liquid is the most difficult to pronounce for Myanmar learners, and it is a little difficult to pronounce in Plosive, Fricative, and Affricate but it is easy to pronounce in strong sound and glottal sound of them. The expected errors that may occur in vowel are that the sound of [e],[ɛ] are the most difficult to pronounce for the Myanmar learners and also the sound like [i], [ü], [ö], [iy] are difficult to them. Besides, the vowel sound of [a], [ə], [o] are a little difficult but the vowel sound of [i], [u] are easy for them.

The paper is focused on the analysis of vowel and consonants and it is found that the expected errors which can be help to develop the Myanmar learners of Korean.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develop of Korean pronunciation correctly for the teaching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운체계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또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어를 배울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언어의 발음이다.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분절음, 즉 자음과 모음이다.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어의 자음과 모음을 배울 때 모국어의 발음 체계에 대응시켜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¹⁾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발음체계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어는 한국어보다 음소 개수가 많아서 발음할 때 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소 체계가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두 언어는 어족에 다르다. 계통적으로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교착어이고, 미얀마어는 차이나-티벳어족 (Sino-Tibetan)의 티벳-버마어계 (Tibeto-Burman)에 속하며 고립어와 교착어의 구조적인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²⁾ 미얀마에는 약 135 개의 민족이 있고, 공용어로 채택된 것이 미얀마어이다. 미얀마어는 성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어휘가 단음절이라는 점에서 차이나-티벳어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다른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음소 체계에 차이를

1) 앞으로 본 논문에서 ‘모국어’는 ‘미얀마어’, ‘목표어’는 ‘한국어’를 지칭한다.

2) Mg Khin Min(2012:13)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하는 것은 목표어의 정확한 발음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 분석은 두 언어의 음소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학습자가 당면할 어려움을 예측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으로 오류를 범했을 경우 대조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³⁾ 따라서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소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예상되는 음소에 대해 예측하고, 또한 발음 오류의 원인도 예상함으로써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

2000 년경부터 드라마로 인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미얀마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 년에 한국과 미얀마 간의 고용허가제가 체결되면서 미얀마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 미얀마에 한국 기업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미얀마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미얀마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얀마에 단 두 개만 존재하는 한국어학과(양곤 외국어 대학교, 만달레이 외국어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미얀마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어학원들도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3) 조재은(2007:12)

많이 생기고 있다.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미얀마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발음이다. 발음은 처음부터 잘못되면 나중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미얀마어에 대한 음운 대조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고 특히 자음과 모음에 대한 양 언어의 대조 연구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양 언어의 자음과 모음을 대조하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혀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예측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 인해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발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체계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대조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양 언어의 음운론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각 언어의 음운체계의 특징이나 어려움 및 견해들을 수집할 것이다. 연구 방법은 대조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대조분석가설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제 2 언어의 학습에서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진단·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Lado(1957)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 1) 언어들은 서로 간의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많다.

2) 언어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기술될 수 있다.

3) 이런 차이로 인해 제 2 언어 학습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전이가 일어난다.

Clifford Prator(1967)는 문법 난이도 위계의 본질을 6 가지 범주의 난이도로 구성하여 언어의 문법적 특징과 음운적 특징 모두에 적용하였다. 그 단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단계 - 전이(transfer): 두 언어 사이에 서로 다르거나 대조되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단계

1 단계 - 합체(coalescence): 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어에서 본질적으

로 한 항목으로 합쳐지는 경우

2 단계 - 구별 부족(under differentiation):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

어에는 없는 경우

3 단계 - 재해석(reinterpretation): 모국어의 어떤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거나 분포가 다른 경우

4 단계 - 과잉 구별(overdifferentiation): 모국어에 없거나 만일 있다 해

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항목이 목표어에 있어

서 배워야 하는 경우

5 단계 - 분리(split):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으로 분리되는 경우

대조분석가설은 학습자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주의해야 할 요소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며,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음소 체계에 있는 발음을 한국어의 음소 체계에 대응시켜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음소체계, 모음음소체계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내용을 장별 구성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 1 장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논의를 정리한다.

제 3 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음방법에 대한 유사점과 양 언어 조음방법의 특징에 대해 차이점을 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제 5 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소체계에 대해 대조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한국어의 음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 음의 대조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국어 음운에 대한 연구는 다른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와의 대조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의 음운 연구와 다른 외국어의 대조연구를 살펴보겠다.

노금송(2000)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분석한 다음, 분류별로 비교해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어 오류를 예측하고 오류가 예측되는 소리들에 대하여 실제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과 비교했다.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음소 체계의 지도’, ‘혼동하기 쉬운 음운에 대한 지도’, ‘간접 현상에 대한 지도’와 ‘음운 규칙에 대한 지도’ 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연희(2001)에서는 중국 현장 교육 경험을 토대로 한·중 자·모음 체계를 각각 분류하고 대조·분석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낸 후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발음에서 많이 나타나는 오류의 예를 들었고,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어 음운의 효과적인 발음 방법을 제시하였다.

장향실(2002)에서는 중국어 화자들이 평음을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로 한국어의 평음에 대응시킬 만한 중국어 자음이 없음을 들고 있다.

중국어의 폐쇄음에는 무기무성음과 유기무성음이 있지만 한국어 평음 계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무기무성폐쇄음이 한국어의 평음과 음성학적으로 아주 다르며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이 모두 음성학적으로 기식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국인 화자들이 그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둘을 같은 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어의 폐쇄음은 모두 무성음이지만 근육의 긴장도와 기류의 세기가 유성폐쇄음에 더 가깝고 한국어의 무성무기 폐쇄음, 곧 평음은 전형적인 무성무기 폐쇄음이므로 중국인 화자들은 한국어의 무성무기 폐쇄음(평음)과 중국어의 무성무기 폐쇄음이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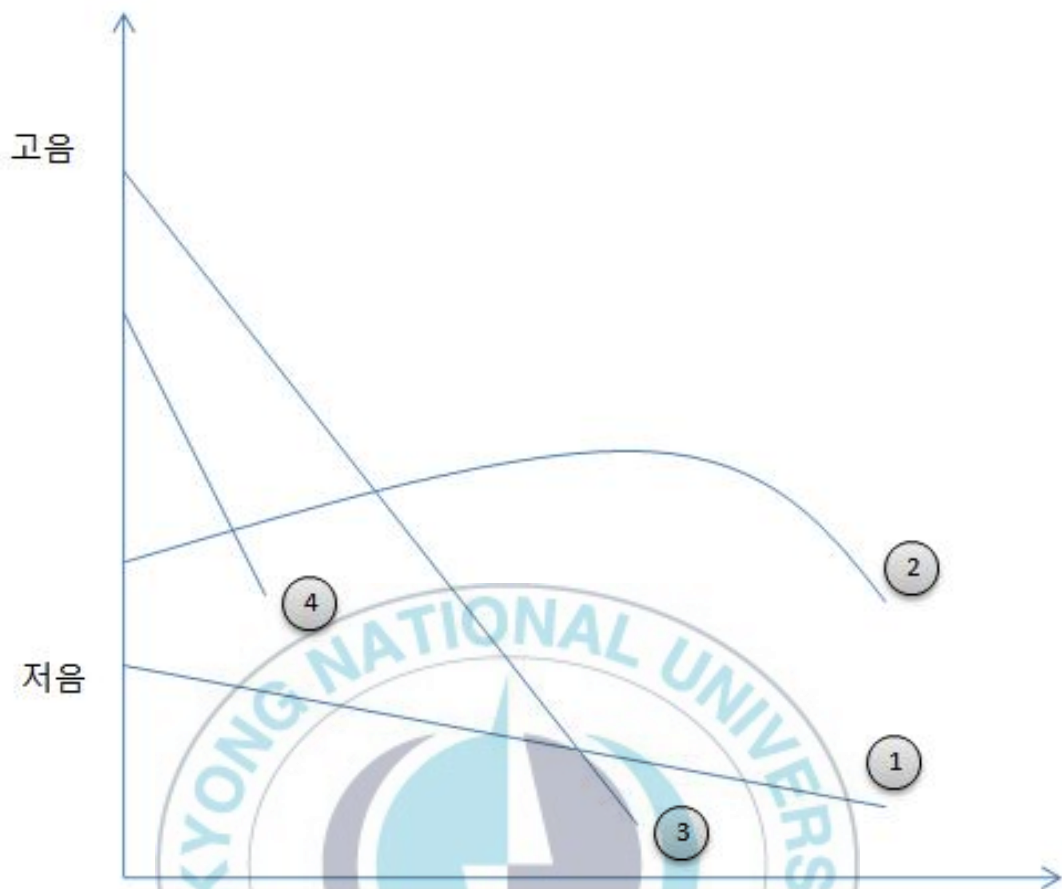
범류(2005)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 음소 및 그 변이음의 대조를 통해 두 언어 자음 간의 조음음성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관계를 밝혔다. 변이음의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프레이토가 제시한 난이도 단계 가설을 적용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자음에서 겪을 어려움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긴장’ 자질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파열, 유성음과 양순, 치조, 연구개 비음이 가장 쉬운 항목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추이진단(2002)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소를 자세하게 비교하고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중국어에 있는 대응음을 이용해 가르치는 방법과 중국어에 대응음이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어 경음 /ㅃ/, /ㅆ/, /ㅈ/는 중국어 무기 파열음 /b/[p], /d/[t], /g/[k]에, 격음 /ㅍ/, /ㅌ/, /ㅋ/는 유기 파열음 /p/[p'], /t/[t'], /k/[k']에 대응시켜 가르치고 평음은 중국어 비강세 음절에서 나타나는 무기 파열음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대조 연구를 제시하기에 앞서 미얀마어에 대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미얀마어는 시노-티벳 (Sino-Tibet) 어족에 속하고 민족 언어가 약 백 개가 넘는 미얀마의 공용어이다. 미얀마어에는 문자상으로는 자음 33 개와 기본 모음 11 개가 있으며 기본 자모음은 총 44 개가 있다.⁴⁾ Htun Myint(2007)를 따르면 자음 음소는 32 개이다. 미얀마어의 자음은 유성음-무성음, 유기음-무기음의 대립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는 원래의 모음 22 개, 콧소리로 발음된 모음 18 개,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 7 개, 총 모음 47 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어에는 성조가 4 개 존재한다. 그에 따라 모음의 수가 많아지고 형태도 바뀐다. 미얀마어에서 1 성은 낮은 성조이다. 2 성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렸다가 내린다. 3 성은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빨리 떨어뜨려 발음한다. 4 성은 높은 음에서 중간까지 낮은 음으로 내린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Myanmar Language Commission (2005:1)



<그림 1>미얀마어의 성조⁵⁾

미얀마어에는 1 성은 표시가 없다. 2 성은 표시가 모음 옆에 있다. 3 성은 아래에 표시하고 4 성은 위에 표시한다. 다음은 미얀마어에서 성조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예시이다.

⁵⁾ Thein Tun(2012:115)

성조	어휘	뜻
1 성	hti	복권
2 성	hti:	우산
3 성	hti.	만지다
4 성	hti'	말을 더듬다

<표 1> 미얀마어성조의 예

미얀마의 음절구조는 유형별로 네 가지가 있다.

- (1) 모음
- (2) 자음 + 모음
- (3) 자음 + 모음(비음)
- (4) 자음 + 모음(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 : glottalized sound)

음절구조 유형		예	성조
모음 (V)	기본 모음	a:	2 성
	비음 모음	an	1 성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	ae'	4 성
자음+모음(CV)	자음+기본 모음	ka:	2 성
	복합자음+기본 모음	hma:	2 성
	자음+비모음	khin	1 성
	복합자음+비모음	kjin.	3 성
	자음+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	si'	4 성
	복합자음+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	mjau'	4 성

<표 2> 미얀마어의 음절구조의 예

미얀마어에도 음운현상이 존재하지만 한국어만큼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아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미얀마어를 예시로 제시할 때 Aung Win Naing(2000)의 표기법을 따라 로마자로 제시할 것이다. 미얀마어 자음 33 개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어 자음	발음 기호	로마자 표기
က	[k]	k
ခ	[kh]	kh
ဂ,ဃ	[g]	g
င	[ŋ]	ng
စ	[s']	s
ဆ	[s ^h]	hs
ဇ,ည	[z]	z
ည	[ɲ]	nj
တ,ထ	[t]	t
တ,ထ	[t ^h]	ht
ဒ,ဃ,ပ,ဝ	[d]	d
က,န	[n]	n
ပ	[p]	p
ဖ	[p ^h]	hp
ဗ,ဘ	[b]	b
မ	[m]	m
ယ,ရ	[j]	j
လ,ဠ	[l]	l
ဝ	[w]	w
သ	[ə]	th
ဟ	[h]	h
အ	[a]	a

< 표 3 > 미얀마어 자음의 목록과 로마자 표기

그리고 미얀마어에 있는 자음 33 개 중에 ဝ, ရ, ဝ, ဟ 4 개는 다른 형태로 바뀌서 자음 몇 개하고 복합한다. 바뀐 형태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어 자음(문자)		바뀐 형태 기호
ဝ[j]	=	၂
ရ[j]	=	၂
ဝ[w]	=	ဝ
ဟ[h]	=	၂

< 표 4 > 미얀마어 자음의 바뀐 형태⁶⁾

★-၂ 기호를 "ja. pin.", ၂ 기호를 "ja. ji'", ဝ 기호를 "wa. hswe:", ၂ 기호를 ha. htou: 라고 부른다. ja. pin., ja. ji', wa. hswe:, ha. htou: 의 기호는 자음과 하나씩 복합할 수도 있고 두 개나 세 개 같이 복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얀마어에서는 이 4 개의 기호가 복합한 것을 가리켜 복합자음이라고 부른다. 복합자음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⁶⁾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203)

미얀마어 복합자음	발음 기호	로마자 표기
ကျ၊ ကြ	[te']	kj
ချ၊ ခြ	[te ^h]	ch
ဂျ၊ ဂြ	[dʒ]	gj
မှ	[hm]	hm
နှ	[hn]	hn
ည	[hɲ]	hnj
ငှ	[h ŋ]	hng
လှ	[hl]	hl
ရှ	[ɕ]	sh
ှ	[hw]	hw

< 표 5 > 미얀마어 복합자음⁷⁾과 로마자 표기

미얀마어에는 기본 모음(단모음)이 11개가 있다. 그런데 기본 모음 11개를 살펴보면 음소는 같고 성조 차이만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성조를 제외한 기본 모음을 7 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 모음 11 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⁷⁾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203,204)에서 참조해서 복합자음 몇 개를 제시한다.

미얀마어 기본 모음	발음 기호	로마자 표기
အ	[a.]	a.
အာ	[a]	a
ဣ ၊ အိ	[i.]	i.
ဤ ၊ အီ	[i]	i
ဥ	[u.]	u.
ဦ	[u]	u
ဧ ၊ အေ	[e]	ei
အဲ	[ɛ:]	e:
ဩ ၊ အော	[ɔ:]	o:
ဪ ၊ အော်	[ɔ]	o
အို	[o]	ou

< 표 6 > 미얀마어의 기본 모음⁸⁾과 로마자 표기

⁸⁾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356)

기본 모음 7 개를 1성, 2성, 3성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조 표기	미얀마어 기본모음+성조	발음 기호	로마자 표기	성조
ၵ/ ၵ	အာ	[a]	a	1 성
ၵၵ/ ၵၵ	အား	[a:]	a:	2 성
ၵ	အ	[a.]	a.	3 성
ၶ	အိ	[i]	i	1 성
ၶၶ	အိး	[i:]	i:	2 성
ၶ	အိ	[i.]	i.	3 성
ၷ	အူ	[u]	u	1 성
ၷၷ	အူး	[u:]	u:	2 성
ၷ	အူ	[u.]	u.	3 성
ၸ	အေ	[e]	ei	1 성
ၸၸ	အေး	[e:]	ei:	2 성
ၸ	အေ	[e.]	ei.	3 성
ၹ	အယ်	[ɛ]	e	1 성
ၹၹ	အဲ	[ɛ:]	e:	2 성
ၹ	အဲ	[ɛ.]	e.	3 성
ၺ	အော်	[ɔ]	o	1 성
ၺၺ	အော	[ɔ:]	o:	2 성
ၺ	အော	[ɔ.]	o.	3 성
ၻ	အို	[o]	ou	1 성
ၻၻ	အိုး	[o:]	ou:	2 성
ၻ	အို	[o.]	ou.	3 성

< 표 7 > 성조 가진 기본 모음과 로마자 표기

위 표에 있는 3성 / a. /은 발음 표기만 있고 적을 때 자음(문자) 그대로 적는다. 기본 모음은 1성, 2성, 3성까지 포함하면 21개가 있다. 반 정도 발

음하는 /a./가 포함하면 22개이다. 다음으로 미얀마어에는 비모음 (콧소리
로 발음된 모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조 표기	미얀마어 비모음	발음 기호	로마자 표기	성조
--င	အင်	[in]	in	1 성
--ငး	အင်း	[in:]	in:	2 성
--င့	အင့်	[in.]	in.	3 성
--န	အန်	[an]	an	1 성
--နး	အန်း	[an:]	an:	2 성
--န့	အန်	[an.]	an.	3 성
၀န	အွန်	[un]	un	1 성
၀နး	အွန်း	[un:]	un:	2 성
၀န့	အွန်	[un.]	un.	3 성
၀န	အိန်	[ein]	ein	1 성
၀နး	အိန်း	[ein:]	ein:	2 성
၀န့	အိန်	[ein.]	ein.	3 성
၀န	အုန်	[oun]	oun	1 성
၀နး	အုန်း	[oun:]	oun:	2 성
၀န့	အုန်	[oun.]	oun.	3 성
၀င	အိုင်	[ain]	ain	1 성
၀ငး	အိုင်း	[ain:]	ain:	2 성
၀င့	အိုင်	[ain.]	ain.	3 성
၀--င	အောင်	[aun]	aun	1 성
၀--ငး	အောင်း	[aun:]	aun:	2 성
၀--င့	အောင်	[aun.]	aun.	3 성

< 표 8 > 비모음과 로마자 표기

다음으로 미얀마어에는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은 중성에만 나온다. 그 모음으로 끝나는 소리를 4 성이라고도 한다.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성조 표기	미얀마어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	발음 기호	로마자 표기	성조
--ိ	အိ	[iʔ]	i'	4 성조
--က်	အက်	[eʔ]	e'	
--တ်	အတ်	[aʔ]	a'	
ံတ်	အွတ်	[uʔ]	u'	
ိတ်	အိတ်	[eiʔ]	ei'	
ုတ်	အုတ်	[ouʔ]	ou'	
ိတ်	အိုတ်	[aiʔ]	ai'	
ေတ်	အောတ်	[auʔ]	au'	

< 표 9 >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⁹⁾과 로마자 표기

마지막으로 미얀마어에서는 문장기호에 대해서 표현하는 기호가 영어, 한국어와 다른 기호로 존재한다. 미얀마어에서 사용하는 문장기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362)에 있는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을 정리한 것이다.

쉼표 ‘ , ’ (coma) - ‘ | ’

마침표 ‘ . ’ (full stop) - ‘ || ’

물음표 ‘ ? ’ (Question mark) - ‘ || ’

미얀마어에서는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의문문도 마침표와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미얀마어에서는 의문형종결어미로 인해 물음표가 없어도 의문문인지 알 수 있다.

미얀마어의 자음(문자)은 33 개가 있지만 같은 소리를 하나로 생각하면 22 개이다. 그리고 복합자음도 있다. 그래서 자음 수로는 한국어 보다 많은 편이다.



III.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대비

3.1. 한국어의 자음 체계

한국어의 자음 음소는 /p, ph, p', t, th, t', k, kh, k', s, s', h, tɕ, tɕh, tɕ', m, n, ŋ, l, w, j/로 21개가 있다.

한국어의 자음 음소는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성대의 진동의 유무, 기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조음위치별로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활음 등의 여섯 가지로 나뉜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장애음'이라 하는 데, 파열음, 마찰음과 파찰음은 모두 무성음이다. 비음, 유음, 활음은 '공명음'이라 하는 데, 비음, 유음, 활음은 모두 유성음이다. 격음 /ph, th, kh, tɕh/은 조음과정에서 '유기성'을 수반하는 '유기음'이고, 평음 /p, t, k, s, h, tɕ, /과 경음 /p', t', k', s', tɕ'/은 '유기성'을 수반하지 않는 '무기음'이다.

조음방법 기의세기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무성무기(평음)	p	t		k	
		무성유기(격음)	p ^h	t ^h		k ^h	
		무성무기(경음)	p'	t'		k'	
	마찰음	무성무기(평음)		s			h
		무성무기(경음)		s'			
	파찰음	무성무기(평음)			tɕ(ɸ)		
		무성유기(격음)			tɕ ^h (ɸ ^h)		
		무성무기(경음)			tɕ'(ɸ')		
공명음	유성(비음)		m	n		ŋ	
	유성(유음)			l			
	유성(활음)		w		j		

< 표 10 > 한국어의 자음 체계¹⁰⁾

3.2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U Shwe Thwin(1969), Htun Myint(2007)는 미얀마어의 자음 음소를 /b, ph, p', d, th, t', g, kh, k', ʔ, ɔ̃, ɐ, z, sh, s, ɕ, h, ɔ̃ʒ, tɕh, tɕ, m, hm, n, hn, ɲ, hɲ, ɳ, hɳ, l, hl, w, j/의 32개로 제시했다. Mg Khin Min(Danuphyu) (2012)는 미얀마어의 자음 음소를 /b, ph, p', d, th, t', g, kh, k', ɔ̃, ɐ, z, sh, s, j(ṇ), ɕ, h, h̥, ɔ̃ʒ, tɕh, tɕ, m, m̥, n, n̥, ɲ, ɲ̥, l, l̥, w, w̥ j(ɰ)/의 34개로 정의했다. Thein Tun(2012)는 미얀마어 자음 음소를 /b, ph, p', d, th, t', g, kh, k', ʔ, ɔ̃, ɐ, z, sh, s, ɕ, h, ɔ̃ʒ, tɕh, tɕ, m, m̥, n, n̥, ɲ, ɲ̥, l, l̥, w, w̥ j(ɰ)/의 34개로 정의했다.

10) 허용 .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p.84 ; 나찬연(2013) 『표준 발음법의 이해』, 월인. p.20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p.51 를 참고하여 미얀마어 자음체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구조와 용어로 정리하였다.

n, n̥, ɲ, ɲ̥, l, l̥, w, w̥, ɹ, j/의 34개로 제시했다. /w̥, m̥, n̥, ɲ̥, ɲ̥, l̥/는 다른 방법으로 /hw, hm, hn, hɲ, hɲ̥, hl/ 라고 쓸 수 있다.¹¹⁾

성문폐쇄음[ʔ]는 후두 안에 있는 성대 두개가 공기를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릴 때 일어나는 소리이다. 성문폐쇄음[ʔ]는 미얀마어의 종성에서만 일어난다. 성문폐쇄음을 종성에서 /i'/, /e'/, /a'/, /u'/ 등으로 끝나는 말에서 볼 수 있다. 성문폐쇄음으로 만드는 단어들은 /khiʔ ɕiʔ/[khiʔ ɕiʔ] '(현대)', /taiʔ khaiʔ/[taiʔ khaiʔ] '(공격)', /ɕaʔ jaʔ/[ɕəʔ jaʔ] '(산뜻한)', /luʔ laʔ/[luʔ laʔ] '(자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문폐쇄음 [ʔ]를 4성으로 보았다. 미얀마어의 문자에는 [ð]로 쓰는 단어는 없다. 미얀마어 사전에는 [ð]로 발음된 단어들은 미얀마어의 문자 /ə/(ၵ)로만 쓴다. 예를 들어 /əu/ [əu] '(ၵ)', /ɕaun:/ [ɕaun:] '(ၵၵၵၵ)', /we əu/ [we ðu] '(ၵၵၵၵ)', /ɕetinsa/[ðdinza] '(ၵၵၵၵၵၵ)' 등의 단어들을 보면 [ð]는 음소가 아니고 변이음이라고 해야 적절할 것이다. j(ၵ), j(ၵ)는 미얀마어 문자로 다르지만 발음은 같은 발음이다. /ɹ/는 /j(ၵ)/의 변이음인데 외래어를 발음할 때 쓰이고 단어는 많지 않다.

성문폐쇄음과 변이음을 자음음소 목록에서 제외시킨다면 미얀마어의 자음 음소는 /b, ph, p', d, th, t', g, kh, k', ɕ, z, sh, s, ɕ, h, ðʒ, tɕh, tɕ, m, hm, n, hn, ɲ, hɲ, ɲ, hɲ̥, l, hl, w, hw, j/의 31개이다. 미얀마어의 자음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성대의 진동의 유무, 기식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다.

11) Thein Tun(2012:3)

(1) 조음위치에 따라

조음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양순음, 치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나누어진다.

양순음은 움직일 수 없는 윗입술과 움직일 수 있는 아랫입술이 닿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양순음에 일어나는 자음을 입술자음이라고 한다. 입술자음은 /b, ph, p', m, hm, w, hw/이다.

치음은 움직일 수 없는 윗니와 움직일 수 있는 혀의 앞부분이 닿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치음에 일어나는 자음을 치아자음이라고 한다. 치아자음은 /θ/이다.

치조음은 움직일 수 없는 윗니와 이어 있는 치경과 움직일 수 있는 혀의 앞부분이 닿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치조에서 일어나는 자음을 치경자음이라고 한다. 치경자음은 /t, th, d, hn, n, hl, l, s, sh, z/ 이다.

치조경구개음은 움직일 수 없는 치경의 끝부분, 경구개의 시작하는 위치와 움직일 수 있는 평평한 혀가 닿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치조경구개에서 일어나는 자음을 치조경구개자음이라고 한다. 치경구개자음은 /ç, tç', tçh, ðʒ/ 이다.

경구개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경구개와 움직일 수 있는 평평한 혀가 닿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구개음에서 일어나는 자음을 구개자음이라고 한다.

구개자음은 /hŋ, ɲ, j/이다.

연구개음은 움직일 수 없는 연구개와 움직일 수 있는 혀의 뒷부분이 닿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연구개음에서 일어나는 자음을 연구개자음이라고 한다. 연구개자음은 /k, kh, g, hŋ, ɲ/이다.

성문음은 성대 사이의 공간에서 공기 흐름의 장애가 일어나 나오는 소리이다. 성문음에서 일어나는 자음을 성문자음이라고 한다. 성문자음은 /h/이다.

(2) 조음방법에 따라

조음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활음으로 나눌 수 있다.

파열음은 붙어 있는 발성기관 두 개를 갑자기 떼 때 막혀 있는 공기 흐름이 개방되어 일어나는 소리이다. 파열음은 /p, ph, b, t, th, d, k, kh, g/이다.

파찰음은 붙어 있는 발성기관 두 개를 천천히 파찰해서 일어나는 소리이다. 파찰음은 /tɕ, tɕh, ʈʂ/이다.

마찰음은 좁은 길에서 공기가 빠져 나갈 때 움직일 수 없는 발성기관과 움직일 수 있는 발성기관들 사이에서 공기가 마찰해서 일어나는 소리이다. 마찰음은 /θ, s, sh, z, ʃ, h/ 이다.

비음은 공기가 코로 빠져 나갈 때 나는 소리이다. 비음은 / hm, m, hn, n, hn, n, hn, η/이다.

설측음은 혀끝이 구강의 중앙 부분을 막고,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흐르며 나는 소리이다. 설측음은 /hl, l/이다.

활음은 미끄러지듯 발음되는 소리이다. 활음은 발음될 때 고정된 위치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잠깐 스쳐 지나간다. 활음은 /w, hw, j/ 이다.

성대의 진동의 유무와 기식성의 유무로도 자음을 분류할 수 있다. 성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무성자음이다. 무성자음은 /k, s, n, t, n, p, m, ɐ, h, tɕ/이다. 무성상태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발음하면 기식자음이 된다. 기식자음은 / kh, sh, th, ph, tɕh /이다. 성대가 거의 닫혀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성대가 진동되면 유성자음이다. 유성자음은 /g, ŋ, z, d, n, b, m, j, l, w, ɔ̃/이다. 성대의 진동을 조금 줄여서 발음하면 무성화자음이다. 무성화자음은 / hn, hm, hn, hl, hn, hw /이다. 미얀마어의 장애음은 유성무기음, 무성유기음, 무성무기음으로 구분된다. 비음과 유음도 유성무기음, 무성유기음으로 구분되는 것이 미얀마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음방법 \ 조음위치		양순음	치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기악 세기								
장 애 음	파열음	유성무기음	b		d		g	
		무성유기음	p ^h		t ^h		k ^h	
		무성무기음	p'		t'		k'	
	마찰음	유성무기음			z			
		무성유기음			s ^h			h
		무성무기음		θ	s'	ʃ		
	과찰음	유성무기음				ʒ		
		무성유기음				tʃ ^h		
		무성무기음				tʃ'		
공 명 음	비음	유성무기음	m		n	ɲ	ŋ	
		무성유기음	hm		hn	hɲ	hŋ	
	유음	유성무기음			l			
		무성유기음			hl			
	활음	유성음	w			j		
		무성유기음	hw					

< 표 11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¹²⁾

¹²⁾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154), Htun Myint (2007:87,88).에서 참조함.

3.3 한 · 미 자음 체계 대조

한국어 자음의 음소는 21개가 있고 미얀마어 자음의 음소는 31개가 있다. 양 언어 자음 음소를 조음위치 및 조음방법을 기준으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3.3.1. 조음 위치

한국어 자음체계는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과 후음으로 5개의 계열로 구분되는 반면에 미얀마어 자음체계는 양순음, 치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성문음)으로 7개의 계열로 구분된다. 한국어에는 치음과 치조경구개음이 없다.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자음을 조음 위치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조음위치	한국어	미얀마어
양순음	p, p ^h , p', m, w	b, p ^h , p', m, hm, w, hw
치음		ə
치조음	t, t ^h , t', s, s', n, l	d, t ^h , t', s, s ^h , z, n, hn, l, hl
치조 경구개음		ɕ, dʒ, tɕ ^h , tɕ'
경구개음	tɕ, tɕ ^h , tɕ', j	ɲ, hɲ, j
연구개음	k, k ^h , k', ŋ	g, k ^h , k', ŋ, hŋ
후음(성문음)	h	h

< 표 12 >조음 위치별 자음 대조

미얀마어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음위치 면에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위치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조음위치면에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발음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어에서는 /ɕ, dʒ, tɕ^h, tɕ'/가 치조경구개음으로 분류되는데, 이 소리들은 한국어의 경구개음과 차이가 없다. 엄격히 말하면 한국어의 /tɕ, tɕ^h, tɕ'/도 치조경구개음이라 할 수 있다.

3.3.2 조음 방법

한국어는 파열음이 9개, 마찰음이 3개, 파찰음이 3개, 비음이 3개, 유음이 하나, 활음이 2개로 미얀마어와 비교하면 자음의 수가 적다. 미얀마어의

경우에는 9개의 파열음, 6개의 마찰음, 3개의 파찰음, 8개의 비음, 2개의 유음, 3개의 활음이 있는 언어로 한국어에 비해 비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자음을 조음 방법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조음 방법	한국어	미얀마어
파열음	p, p', p ^h , t, t', t ^h , k, k', k ^h	b, p', p ^h , d, t', t ^h , g, k', k ^h
마찰음	s, s', h	ə, s ^h , s, z, ʃ, h
파찰음	tʃ, tʃ', tʃ ^h	dʒ, tʃ', tʃ ^h
비음	m, n, ŋ	hm, m, hn, n, hɲ, ɲ, hŋ, ŋ
유음	l	hl, l
활음 / 전이음	w, j	w, hw, j

< 표 13 >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음 방법별 자음 목록

3.3.2.1 파열음

조음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한	미	한	미	한	미
파열음	무기음 (평음)	유성		b		d		g
		무성	p		t		k	
	무기음 (경음)	무성	p'	p'	t'	t'	k'	k'
			유기음 (격음)	p ^h	p ^h	t ^h	t ^h	k ^h

< 표 14 >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파열음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파열음을 대조해 볼 때, 한국어 파열음과 미얀마어 파열음의 수는 같다. 하지만 미얀마어는 유성무기음,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한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위 표에서 보면 한국어 파열음은 모두 무성음인데 미얀마어 파열음은 유성과 무성으로 구분이 된다. 미얀마어의 무성유기음 /p^h, t^h, k^h/은 한국어의 격음 /p^h, t^h, k^h/과 비슷하며 미얀마어의 무성무기음 /p', t', k' /은 한국어의 경음 /p', t', k' /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어 평음 /p, t, k/을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미얀마어에 있는 유성과열음 /b, d, g/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을 발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평음을 발음할 때는 한국인과 약간 차이가 있다. 한국인들은 초성에 나오는 파열음을 무성음으로 발음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무성과열음에 유성과열음이 변이음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못하고 전부 유성무기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한국어 자음 체계에 유성·무성 대립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미얀마인 학습자가 파열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해도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초성에 있는 평음이 한국 사람의 발음과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열음에 있는 평음의 초성발음오류

가구[kagu]→[gagu]

고기[kogi]→[gogi]

도구[togu]→[dogu]

두부[tubu]→[dubu]

바보[pabo]→[babo]

부부[pubu]→[bubu]

미얀마어는 음절구조가 CV이므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을 발음할 때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종성을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있는 성조 중에 3성¹³⁾으로 발음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발음 안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한국어의 종성에 있는 파열음을 발음할 때 구강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혀로 막아서 발음하는데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구강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혀로 막지 않고 발음하기 때문에 조음위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중·고급 학습자보다 초급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종성 파열음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2) 파열음에 있는 평음의 종성발음오류

국[kuk^ː]→[gu.]

박[pak^ː]→[ba.]

낫[nat^ː]→[na.]

닷[tat^ː]→[da.]

¹³⁾ 3성은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빨리 떨어뜨려 발음한다.

갑[kap̚]→[ga.]

앞[ip̚]→[i.]

3.3.2.2 성문폐쇄음

성문폐쇄음은 후두 안에 있는 성대 두개가 막혀 있는 것을 갑자기 뚫 때 일어나는 소리이다. 미얀마어의 초성에서는 성문폐쇄음 /ʔ/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자음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반면 종성에서는 성문폐쇄음 /ʔ/ 하나만 가능하고 나머지 모든 자음이 불가능하다.

성문폐쇄음 /ʔ/을 음성학적으로는 자음이 아니라고 하고 음운학적으로는 자음이라고 한다. 음성학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정할 때 후두 위에 있는 조음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분류한다. 성대폐쇄음 /ʔ/은 후두에 있는 성대 두개가 같이 닫혔다가 열려서 공기가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 소리이다. 후두 위에 있는 조음 기관들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음성학적으로는 성문폐쇄음 /ʔ/은 다른 자음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는 자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는 성문폐쇄음 /ʔ/은 다른 자음들처럼 후두 위에 있는 조음기관들 움직여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음들처럼 자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성문폐쇄음 /ʔ/은 종성에 있으면 소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문법도 바뀐다.¹⁴⁾ 성문폐쇄음 /ʔ/을 자음으로 생각한다면 미얀마어 음절구조는 CVC가 된다. 그런데 미얀마어의 음절구조는 CV이다. 미얀마어에서는 종성

¹⁴⁾ Htun Myint (2007:194)

이 자음으로 끝나는 것이 있지만 표기에만 있고 실제로 발음하지 않는다. 종성에 성문폐쇄음이 있는 것이라면 그 소리는 성조 중에 있는 4성의 소리이다. 그래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을 발음하면 모국어에 있는 성문폐쇄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발음이 불투명하다. 이호영(1996)에서 한국어에도 성대를 막았다 개방하면서 조음하는 성문 파열음 [ʔ]이 존재하는데, 이 소리는 음소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성문폐쇄음의 발음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성문폐쇄음의 발음

아래/ 밑[auʔ]

깊다[nɛʔ]

읽다[pʰaʔ]

덥다[aiʔ]

벗다[tʰuʔ]

가방[eiʔ]

3.3.2.3 마찰음

조음위치 조음방법			치음		치조음		치조 경구개음		성문음	
			한	미	한	미	한	미	한	미
마찰음	무기음 (평음)	유성				z				
		무성			s				h	
	무기음 (경음)	무성		θ	s'	s'		ç		
						s ^h				
	유기음 (격음)									

<표 15>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마찰음 대조

위 표에서 보면 한국어의 마찰음에는 치조음 /s, s'/와 성문음 /h/가 있다. 미얀마어의 마찰음에는 치음 /θ/, 치조음 /s', s^h, z/, 치조경구개음 /ɕ/, 성문음 /h/가 있다. 한국어의 마찰음 수는 3개이고 미얀마어의 마찰음은 6개이다. 한국어의 마찰음에는 치음에 해당하는 /θ/, 치조음 /z/, 치조경구개음 /ɕ/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마찰음과 미얀마어의 마찰음 중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음은 /s'/, /h/ 이다.

한국어의 경음 /s'/는 미얀마어의 무성무기음 /s'/와 발음이 동일하므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발음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평음 /s/을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미얀마어의 무성유기음 /s^h/로 발음한다. 차이점은 기성의 정도이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초성에 있는 평음이 한국 사람의 발음과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어의 마찰음 /s, s'/의 뒤에 모음/ㅣ/가 오면 나타나는 변이음 /ɕ /는 미얀마어에 같은 음소 /ɕ /가 있어서 발음할 때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발음상 큰 어려움은 없다.

한국어의 격음 /h/와 미얀마어의 무성유기음 /h/는 발음상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h/는 초성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흔히 탈락되거나 다른 소리와 합하여져 하나의 소리로 축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어에는 그러한 탈락·축약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h/를 매우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는데, 한국

어에서 유성음 다음에 오는 /h/는 탈락 또는 약화되므로 발음 습득 시 이에 대한 지식(정보)(교수-학습)이 필요하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마찰음 발음은 다음과 같다.

4) 마찰음 발음

술[sul]→[s^hul]

신[ɕin]→[ɕin]

싸움[s'aum]→[s'aum]

씨름[ɕirim]→[ɕirim]

해[hɛ]→[hɛ]

허리[həri]→[həri]

3.3.2.4 파찰음

조음위치 조음방법			치조 경구개음		경구개음	
			한	미	한	미
파찰음	무기음 (평음)	유성		ɗ		
		무성			tɕ	
	무기음 (경음)	무성		tɕ'	tɕ'	
	유기음 (격음)			tɕ ^h	tɕ ^h	

<표 16>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파찰음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파찰음을 대조해 볼 때, 한국어 파찰음과 미얀마어 파찰음의 수는 같다. 그리고 파찰음은 한국어나 미얀마어 모두 경구개음(또는 치조경구개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미얀마어는 유성무기음,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한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위 표에서 보면 한국어 파찰음은 모두 무성음인데 미얀마어 파찰음은 유성과 무성으로 구분이 된다. 미얀마어의 무성유기음 /tɕʰ/은 한국어의 격음 /tɕʰ/과 비슷하며 미얀마어의 무성무기음 /tɕ/은 한국어의 경음 /tɕ'/과 비슷하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파찰음을 발음할 때 /tɕ', tɕʰ/는 어려움이 없이 발음할 수 있지만 평음 /tɕ/의 발음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한국어의 평음 파찰음인 /tɕ/를 미얀마어에 있는 유성무기음 /dʒ/로 대응시켜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유성음 사이에서 발음되는 유성음인 /dʒ/는 잘 발음할 수 있지만 무성음인 /tɕ/의 구별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한국어 자음체계에는 유성·무성 대립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초성에 있는 평음이 한국 사람의 발음과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파찰음에 있는 평음의 초성발음오류의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파찰음에 있는 평음의 초성발음오류

자다[tɕada]→[dʒada]

주다[tɕuda]→[dʒada]

자주[tɕadʒu]→[dʒadʒu]

자리[tɕari]→[dʒari]

지도[tɕido]→[dʒido]

조카[tɕok^ha]→[dʒok^ha]

3.3.2.5 비음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한	미	한	미	한	미	한	미	한	미
비음	유기음	무성		hm				hn		hŋ		hŋ
	무기음	유성	m	m	n		n		ɲ	ŋ	ŋ	ŋ

<표 17>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비음 대조

비음은 한국어나 미얀마어 모두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어에는 구개음이 없다. 한국어의 비음에는 /m, n, ŋ/ 3개가 있고 미얀마어에는 /hm, m, hn, n, hŋ, ɲ, hŋ, ŋ/ 8개의 비음이 있다. 미얀마어에서는 비음이 많고 유·무성 대립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m/, /n/, /ŋ/ 을

초성에서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의 비음 /n/은 /
|/, /j/의 앞에 있을 때 나타나는 변이음 [ɲ]은 미얀마어에 음소로 존재한
다. 그러므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발음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종성에 오는 /ŋ/는 초성에 오지 못하지만 미얀마어는 초성에도
/ŋ/이 나타난다. 한국어의 /m/, /n/을 종성에서 발음할 때 미얀마인 한국
어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n/을 종성에서 발음할 때 어려
움을 겪는다. /n/은 혀끝으로 잇몸을 막아서 소리를 낸다. 미얀마인 학습자
가 종성에 있는 /n/을 발음할 때 종성의 발음이 약해서 한국 사람들은
/ŋ/으로 듣는다. 종성에 있는 /n/비음을 발음할 때 초급 학습자뿐만 아니
라 중·고급 학습자들도 잘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 한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
습자의 발음오류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비음의 종성발음오류

선생님[sə:nsɛŋnim]→[sə:ŋsɛŋnim]

생선[sɛŋsə:n]→[sɛŋsə:ŋ]

선물[sə:nmul]→[sə:ŋmul]

손님[sonnim]→[soŋnim]

신문[ɕinmun]→[ɕinmun]

손목[sonmok̚]→[soŋmo']

3.3.2.6 유음

조음위치 조음방법			치조음	
			한	미
유음	유기음	무성		hl
	무기음	유성	l	l

<표 18>한국어와 미얀마어 유음 대조

한국어의 유음에는 치조음 /ㄹ/가 있으며 미얀마어의 유음에는 치조음 /hl, l/가 있다. 유음 /hl/는 미얀마어에만 존재한다. 한국어의 /ㄹ/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서 [r], [l]로 실현되는데, /ㄹ/의 대표음은 [l]이다. 탄설음인 [r]은 혀끝으로 윗잇몸을 가볍게 한 번 쳐서 내는 소리이다. 설측음인 [l]은 혀끝을 윗잇몸에 아주 붙이고, 혀 양쪽의 트인 데로 날숨을 흘려 내는 소리이다.

미얀마어의 유음 [l]는 한국어의 ‘돌, 달, 거울’등에 나타나는 /ㄹ/[l]와 발음이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어의 ‘노래, 우리, 머리’등에 나타나는 탄설음 /ㄹ/[r]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음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자음 중 하나이다. 한국어의 탄설음 [r]은 미얀마어에 없다. 미얀마어의 활음/j/에 나타나는 /dimokarasi/(민주주의), /paribəga/(가구)등과 같이 변이음 [r]는 있다. 그래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r]를 미얀마어의 있는 [r]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l]와 [r]를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고, 서로를 혼동하여 발음하는 것이라서 오류가 생긴다. 발음오류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유음의 발음오류

머리[məri]→[məri/məli]

노래[norɛ]→[norɛ/nole]

우리[uri]→[uri/uli]

바라다[barada]→[barada/balada]

다리[tari]→[dari/dali]

소리[sori]→[sori/soli]

3.3.2.7 활음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경구개음	
			한	미	한	미
활음	유기음	무성		hw		
	무기음	유성	w	w	j	j

<표 19>한국어와 미얀마어 활음 대조

미얀마어의 활음에는 /w/, /hw/, /j/가 있다. 미얀마어의 활음은 한국어의 활음과 비슷하여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활음을 발음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 소리들은 미얀마어에서는 자음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어에서는 /ㅟ, ㅢ, ㅟ, ㅢ/나 /ㅟ, ㅢ/ 등과 같은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반)모음으로 분류된다. 한국어의 /y, w/는 모음 /ㅣ/와 /ㅗ/보다 짧고 약간은 불투명하게 발음되는 소리이다. 미얀마어 활음 발음의

예는 다음과 같다.

8) 활음의 발음

대나무[wa:]

떨다[wei:]

전통[jo:ja]

만족하다[jaun. je:]

물[j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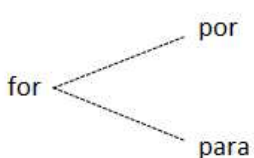
바보[aju:]

3.4.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 습득 난이도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체계를 대조해 볼 때, 한국어 자음 19개로 평음(무성무기음), 경음(무성무기음), 격음(무성유기음)의 삼중 체계로 구분되고 미얀마어의 자음은 31개로 유성무기음,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의 삼중 체계로 구분이 되는데 두 언어의 자음체계의 차이점은 유·무성의 대립이다. 이러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체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는 모국어 발음의 간섭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어떤 자음을 어려워하고 어떤 자음을 쉬워하는지를 다음의 <표 26>난이도의 계층도를 기준으로 (1) ‘분열’ (모국어 하자가 목표어에서 둘로 나뉘는 경우)은 가장 어려움, (2) ‘새로운 것’(모국어에 없는 항목이 목표어에 나타나는 경우)과 아주 어려움(3) ‘부재범주’(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어려움, (4) ‘융합’(모

국어의 2가지 요인이 목표어에서 하나로 합체되는 경우)은 조금 어려움, (5) ‘대응’ (두 언어 간에 차이가 없는 경우)은 쉬움을 설정해서 예측하였다. <표 26>에 따르면 L1에 있는 요소가 L2에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분열(split)’의 경우에 가장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크며, L2의 두 가지 요소가 L2에서 하나로 합쳐서 사용되는 ‘융합(coalesced)’의 경우 조금 어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두 언어에 완전히 서로 그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을 때에는 어려움(difficulty)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차이가 작을수록 습득하기 쉽고 차이가 클수록 습득하기 어렵다는 대조 분석 가설의 주장과 달리, 두 언어 사이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새롭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

어려움의 유형	L1: 영어, L2: 스페인어	예
1. 분열(Split)		
2 새로운 것(New)		grammatical gender
3 부재 범주(Absent)		'do' as a tense carrier
4. 융합(Coalesced)		'his/her' is realized as a single form su
5. 대응(Correspondence)		-ing, -ndo as complement with verbs of perception

<표 20> 난이도의 계층도(Hierarchy of Difficulty)¹⁵⁾

한국어의 유음은 초성이나 중성에서는 설측음[l]로 발음되고 모음 사이에서는 탄설음[r]로 발음되는데 미얀마어에는 [l] 하나만 존재한다. 미얀마어에 나타나는 [l]은 한국어의 중성에서 나타나는 설측음[l]과 비슷하다. 한국어의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r]와 초성에 나타나는 [l]을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미얀마어 활음의 변이음[r]의 간섭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한국어의 탄설음[r]은 혀끝이 치조에 닿아 가볍게 한 번 두들겨 내는 소리이다.

15) 권성미(2009:37)

미얀마어는 한국어와 달리 자음이 유성과 무성으로 구별이 된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초성에 있는 파열음, 파찰음의 평음을 발음할 때 한국 사람의 발음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서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한국어의 마찰음인 치조음/s/, 성문음/h/은 무기음이다. 미얀마어의 마찰음인 치조음/sh/, 성문음/h/은 유기음이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기식성에 차이가 있어서 한국 사람의 발음과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두 언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의 경음, 격음, 마찰음의 경음, 비음과 활음을 발음할 때 서로 해당하는 음소가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음에 대한 예측 결과 미얀마인 학습자에게는 유음을 발음할 때는 가장 어려우며, 파열음(평음), 파찰음(평음)을 발음할 때는 유·무성 차이가 있어서 어렵고, 마찰음(평음)을 발음할 때도 기식성 차이가 있어서 어렵다. 파열음(경음, 격음), 파찰음(경음, 격음), 마찰음(경음), 비음, 활음을 발음할 때는 가장 쉬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음 (조음방법)	미얀마어-한국어	난이도의 계층도	차이의 유무	상대적 난이도
유음	/l/[l] - /l/[l],[r]	분열	차이 있음	가장 어려움
파열음(평음)	/b/ - /p/ /d/ - /t/ /g/ - /k/	유무성 차이가 있음		어려움
파찰음(평음)	/dʒ/ - /tʃ/			
마찰음(평음)	/s ^h / - /s/ /h/ - /h/	기식성 차이가 있음		
파열음(경음)	/p'/ - /p'/ /t'/ - /t'/ /k'/ - /k'/	대응	차이 없음	쉬움
파열음(격음)	/p ^h / - /p ^h / /t ^h / - /t ^h / /k ^h / - /k ^h /			
파찰음(경음)	/tʃ'/ - /tʃ'/			
파찰음(격음)	/tʃ ^h / - /tʃ ^h /			
마찰음(경음)	/s/ - /s/			
비음	/m/ - /m/ /n/ - /n/ /ŋ/ - /ŋ/			
활음	/w/ - /w/ /j/ - /j/			

<표 2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에 대한 예측 결과

IV.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대비

4.1. 한국어의 모음 체계

한국어의 모음은 21개인데, <표준발음법>에 따라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로 나뉜다. 단모음은 하나의 소리로 구성된 모음인 반면, 이중모음은 활음(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소리이다.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으며,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한다.

4.1.1. 단모음

한국어의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모음, 원순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의 단모음 분류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i]	ㄱ [ü]	ㅡ [ɨ]	ㅓ [u]
중모음	ㅔ [e]	ㅚ [ö]	ㅓ [ə]	ㅜ [o]
저모음	ㅐ [ɛ]		ㅑ [a]	

<표 22> 한국어의 단모음¹⁶⁾

4.1.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2개 이상의 모음이 합쳐서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ㅣ (/y/)계열 이중모음’, ‘ㅌ(/w/)계열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ㅣ (/y/)계 이중모음	ㅑ [ya], ㅓ [yə], ㅕ [yo], ㅠ [yu], ㅟ [ye], ㅠ [yɛ]
ㅌ (/w/)계 이중모음	ㅘ [wa], ㅚ [wə], ㅞ [wɛ], ㅟ [we], ㅢ [wi], ㅣ [we]
ㅡ (/i/)계 이중모음	ㅟ [iy]

<표 23> 한국어의 이중모음¹⁷⁾

4.2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Armstrong, Liliias E. and Pe Maung Tin(1925)에서는 미얀마어의 모음음소가 16개라고 언급했다. 모음음소는 9개의 구강모음과 7개의 비모음으로 나뉜다. 구강모음 9개는 다시 단모음 ‘a, i, u, e, ɛ, ɔ, o’ 7개와 이중모음 ‘ai’[aiʔ], au’[auʔ]’ 2개로 나뉜다.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에는 미얀마어는 “a., a, i., i, u., u, e, ɛ:, ɔ:, ɔ”라는 모음이 10개가 있다는 의견들과, “a., a, i., i, u., u, e, ɛ:, ɔ:, ɔ, o”라는 모음이 11개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a., a, i., i, u., u, e, ɛ:, ɔ:, ɔ, an, a:”라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가르칠 때 사용하는 모음)교재모음 12개가 있다

16) 허용 . 김선정(2013:67)

17) 허용 . 김선정(2013:72)

는 의견도 있다. 그 의견들을 보면 기초는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a.와 a, i.와 i, u.와u, e와 ε:, ɔ:와 ɔ는 성조 차이가 있어서 다른 소리가 되는 것이다. 교재모음 12개 중에 있는 an와 a:를 보면 an는 비음에 속하는 모음 중 하나이다. a:는 a.,a와 성조 차이만 있다. 성조를 포함시키면 미얀마어의 모음체계는 원래모음 (22)개, 콧소리로 발음된 모음 (18)개, 성문음으로 발음된 모음(7)개, 총 모음(47)개가 있다. Htun Myint(2007)에서는 미얀마어의 단모음은 'i, e, ε, a, ɔ, o, u'7개와 이중모음은 ei'[eiʔ], ou'[ouʔ], ai'[aiʔ], au' [auʔ]4개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얀마어의 종성에서는 성문폐쇄음 /ʔ/하나만 있으며 이중모음 4개를 발음할 때 종성에 성문폐쇄음이나 비음, 성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수 있다. Thein Tun(2012)에는 미얀마어의 모음을 50개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본 모음	구강모음				비모음		
	1 성조	2 성조	3 성조	4 성조	1 성조	2 성조	3 성조
i	i	i:	i.	i?	in	in:	in.
e	e	e:	e.	e?	ein	ein:	ein.
ε	ε	ε:	ε.	ε?	ain	ain:	ain.
				ai?			
a	a	a:	a.	a?	an	an:	an.
ɔ	ɔ	ɔ:	ɔ.	au?	aun	aun:	aun.
o	o	o:	o.	ou?	oun	oun:	ou.
u	u	u:	u.	u?	un	un:	un.

< 표 24> 미얀마어의 단모음과 비모음의 목록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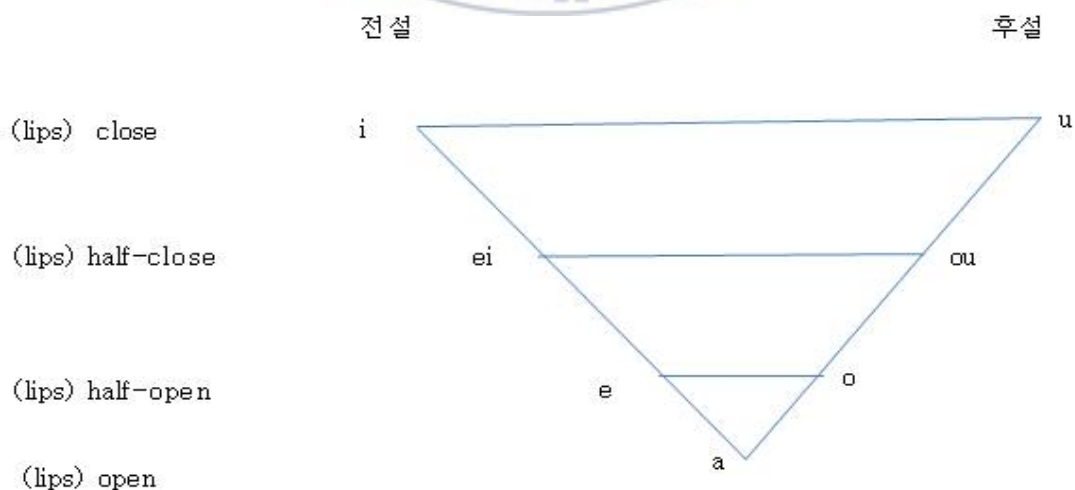
Mg Khin Min(DaNuPhyu) (2012)에서는 모음 중에 “ a, i , u , e, ε, ɔ, o ” 7개의 단모음이 제시되었다. 단모음 7개 중에 i, a, u 모음을 비음으로 발음하면 in, an, un 발음이 된다. 또한 단모음 7개 중 /i, ε, a, u/를 성문폐쇄음/?/와 같이 발음하면 /i?, ε?, a?, u?/가 된다. 그리고 e+in, o+un, a+in, a+un 모음을 2개씩을 이어서 빨리 발음하면 ein, oun, ain, aun라는 비음의 이중모음이 된다. e+i?, o+u?, a+i?, a+u? 모음을 2개씩 이어서 빨리 발음하면 ei?, ou?, ai?, au?라는 성문으로 발음된 이중모음이 된다. 전부 정

¹⁸⁾ Thein Tun(2012:24)

리하면 미얀마어의 음소는 22개이다. 모음 22개는 구강모음 15개와 비모음 7개로 나뉜다. 구강모음은 단모음 7개와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단모음 4개+ 이중모음 4개)로 나뉜다. 비모음 7개는 (단모음 3개+ 이중모음 4개)로 나뉜다. 단모음은 /a, i, u, e, ε, ɔ, o/이고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단모음은 iʔ, εʔ, aʔ, uʔ과 이중모음은 ei'[eiʔ], ou'[ouʔ], ai'[aiʔ], au'[auʔ]이다. 비모음은 in [in], an[an], un[un], ein[ein], oun[oun], ain[ain], aun[aun]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모음의 단모음 7개와 성문폐쇄음의 이중모음 4개, 비모음(이중모음)4개, 총 8개의 이중모음을 비교할 것이다.

4.2.1. 단모음

Aung Win Naing(2000)은 미얀마어 단모음을 /i, e, ε, a, ɔ, o, u/의 7개로 제시했다. 모음의 삼각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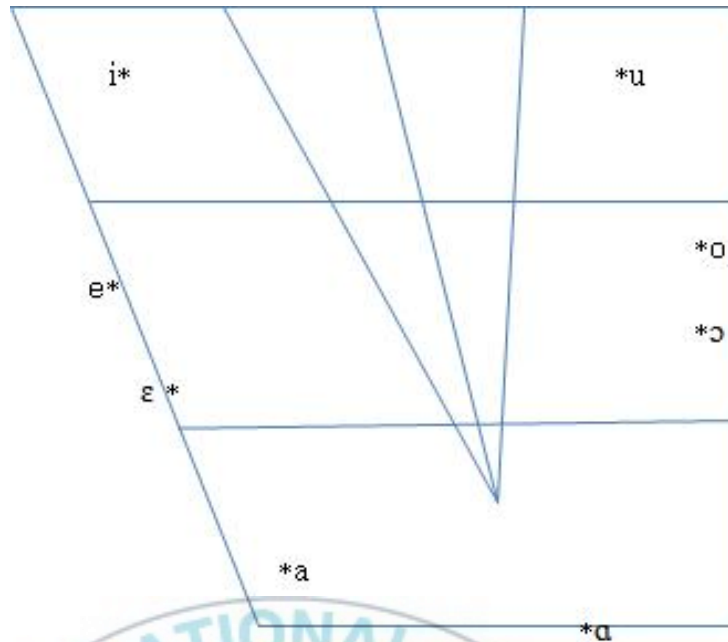


<그림 2>미얀마어의 단모음 삼각도¹⁹⁾

- i [i] - 전설 평순 고모음(closed front unrounded vowel)
- ei [e] - 전설 평순 중고모음(half-close front unrounded vowel)
- e [ε] - 전설 평순 중저모음(half-open front unrounded vowel)
- a [a] - 전설 평순 저모음(open front unrounded vowel)
- o [ɔ] - 후설 중저모음(half-open back rounded vowel)
- ou [o] - 후설 중고모음(half-close back rounded vowel)
- u [u] - 후설 원순 고모음(close back rounded vowel)

Htun Myint(2007)는 미얀마어 단모음을 /i, e, ε, a, ɑ, ɔ, o, u/의 8개로 제시했다. 미얀마어의 모음 /a/ 와 /ɑ/는 음성학적으로 분석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미얀마어 음운론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모음 /a/와 /ɑ/ 2개 중에 /a/만 사용하였다. 미얀마어 단모음 ‘/i/, /e/, /ε/, a/ɑ, /ɔ/, /o/, /u/’의 7모음체계로 설정하였다. 사각도는 다음과 같다.

19) Aung Win Naing(2000:1)



<그림 3> 미얀마어의 단모음 사각도²⁰⁾

- i - 전설 평순 고모음
- e - 전설 평순 중고모음
- ɛ - 전설 평순 중저모음
- a - 전설 평순 저모음
- ɑ - 후설 원순 저모음
- ɔ - 후설 중저모음
- o - 후설 중고모음
- u - 후설 원순 고모음

²⁰⁾ Htun Myint(2007:126)

(1)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a, i, e, ε/는 혀의 앞부분이 경구개쪽으로 올라가 있어 전설모음이라고 한다. /u, ɔ, o/는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쪽으로 올라가 있어 후설모음이라고 한다.

(2) 혀의 높낮이에 따라

/i, u/를 발음할 때 혀는 입천장과 거의 닿는 제일 높은 자리에 이르고 공기의 흐름이 막혀 있어 폐모음이라고 한다. /e, o/를 발음할 때 혀는 조금 내려가서 공기의 흐름이 절반정도에 막혀 있어 그 모음을 반폐모음이라 한다. /ε, ɔ/를 발음할 때 혀는 더 내려가서 공기의 흐름이 약간 있어 그 모음을 ‘반개모음’이라 한다. /a/를 발음할 때 혀는 제일 낮은 위치에 이르고 공기의 흐름이 많아 그 모음을 개모음이라 한다.

(3) 입술의 모양에 따라

/a, i, e, ε/는 입술이 상대적으로 평평하게 되면서 발음되어 있어 평순모음 이라 한다. /u, ɔ, o/는 입술이 상대적으로 둥그랗게 되면서 발음되어 있어 원순모음이라 한다.

전설모음 /i, e, ε, a/

① 전설 평순 고모음 /i/

/i/는 혀의 앞부분이 높아지며, 입이 가장 적게 벌어진다. 입술을 평평하게 펴고 발음한다.

② 전설 평순 중고모음 /e/

/e/는 혀의 앞부분이 높아지며, 두 번째로 입이 작게 벌어진다. 입술을 평평하게 펴고 발음한다.

③ 전설 평순 중저모음 /ɛ/

/ɛ/는 혀의 앞부분이 높아지고 입은 중간 정도 벌어진다. 입술을 평평하게 펴고 발음한다.

④ 전설 평순 저모음 /a/

/a/는 혀의 앞부분이 높아지고 입은 가장 많이 벌어진다. 입술을 평평하게 펴고 발음한다.

후설모음 “u, ɔ, o”

⑤ 후설 원순 고모음/u/

/u/는 혀의 뒷부분이 높아지고 가장 입이 작게 벌어진다. 입술을 둥그랗게 해서 발음한다.

⑥ 후설 중저모음 /ɔ/

/ɔ/는 혀의 뒷부분이 높아지고 두 번째로 입이 적게 벌어진다. 입술을 둥그랗게 해서 발음한다.

⑦ 후설 중고모음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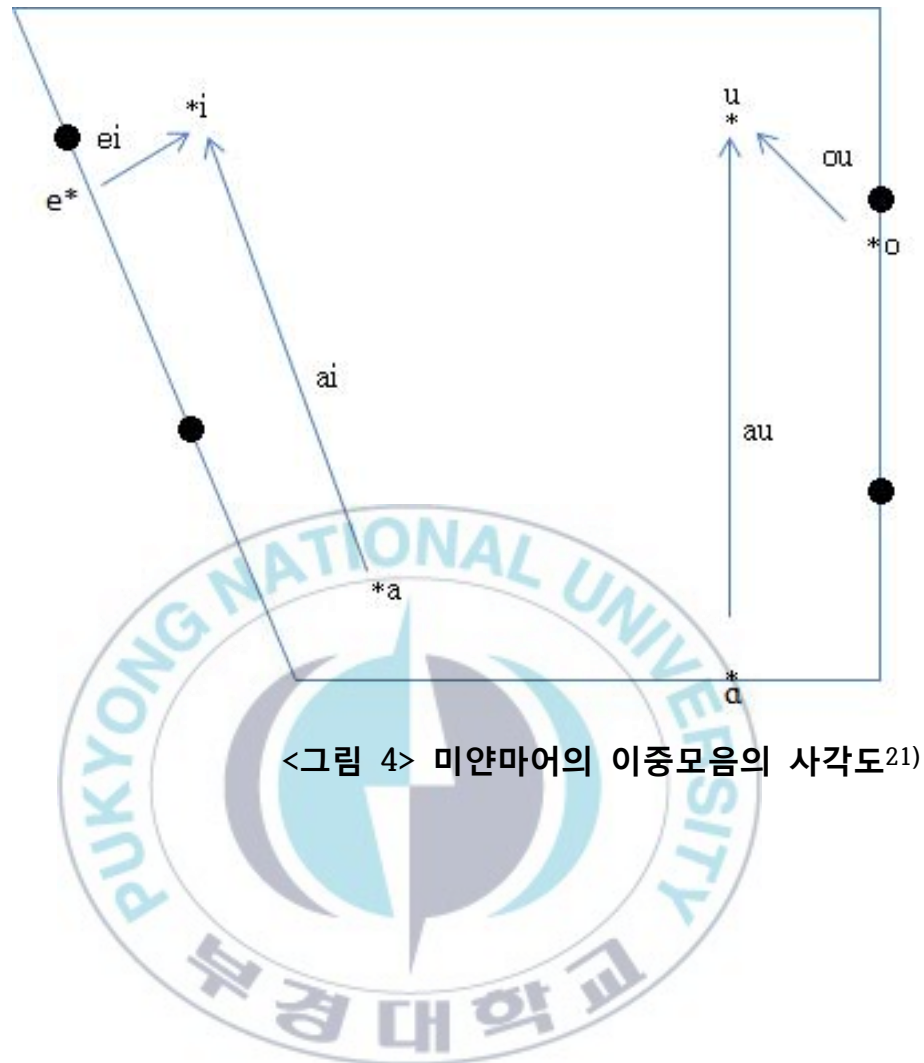
/o/는 혀의 뒷부분이 높아지고 입은 중간정도 벌어진다. 입술을 둥그렇게 해서 발음한다.

혀의 앞뒤 위치 입술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i			u
중모음	중 - 고	e			o
	중				
	중 - 저	ɛ			ɔ
저모음		a			

<표 25> 미얀마어 단모음 체계

4.2.2. 이중모음

Htun Myint(2007)에는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eiʔ/, /aiʔ/, /auʔ/, /ouʔ/ 4 개가 있다.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종성에서 성문으로 발음된 모음(성문폐쇄음) /ʔ/이나 비음(비음+성조)이 없으면 발음할 수 없다. Aung Win Naing(2000)에도 이중모음(이중모음+성문폐쇄음)은 ei' [eiʔ], ou' [ouʔ], ai' [aiʔ], au' [auʔ] 4 개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중모음(이중모음+비음)은 ein [ein], oun [oun], ain [ain], aun [aun] 4 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4.3. 한 . 미 모음 체계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단모음은 10개, 그리고 미얀마어의 단모음은 7개가 존재한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 대조를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²¹⁾ Htun Myint(2007:133)

혀의 앞뒤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혀의 높낮이	입술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한	미얀 마	한	미얀 마	한	미얀 마	한	미얀 마
고모음		ㅣ [i]	i	ㅓ [ü]		ㅡ [ɨ]		ㅗ [u]	u
중모음	중 - 고		e						o
	중	ㅔ [e]		ㅟ [ö]		ㅚ [ə]		ㅛ [o]	
	중 - 저		ɛ						ɔ
저모음		ㅐ [ɛ]	a			ㅑ [a]			

<표 26>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 대조

4.3.1. 단모음

4.3.1.1 한·미 전설모음

(1) 한국어의 /i/와 미얀마어의 /i/

한국어의 /ㅣ/[i] 모음과 미얀마어의 i[i]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와 높이 및 입술 모양이 아주 비슷하다. 이 두 모음은 발음 시 거의 유사해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발음할 수 있다.

한국어 : /pi/[pi] 비, /t'i/[t'i] 떠, /i/[i] 이

미얀마어 : /i/(အိ)[i] 느끼하다, /t'i/(တီ)[t'i] 지렁이

/thi/(ထီ)[thi] 복권, /ni/[ni]빨장다

(2) 한국어의 /꺄/와 미얀마의 (자음/w/+모음/i/)

한국어의 꺄[ü]는 미얀마어의 모음에는 없다. 그래서 한국어의 꺄[ü]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자음 /w/에다가 /i/모음을 붙여서 [wi]로 발음한다.

한국어 : /ü/[ü] 위, /kü/[kü] 귀, /tü/[tü] 뒤

미얀마어 : /wisək'i/(ဝီဆဲကီ)[wisək'i] 위스키, /wisi/(ဝီဆီ)[wisi]호박

(3) 한국어의 /꺅/, /꺆/와 미얀마의 /ɛ/

한국어의 /꺅/[e]는 입술을 옆으로 조금 펴고 전설을 경구개에 접근시켜 조음하고, 한국어의 /꺆/[ɛ]는 입술을 자연스럽게 하고 전설을 경구개로부터 많이 떨어뜨리고 조음한다. 미얀마어의 /e/는 한국어 /e/와는 다르다. Aung Win Naing(2000)에는 미얀마어의 /e/는 영어의 bay[beɪ], day[deɪ], hay[heɪ]와는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어의 /꺅/[e]를 미얀마어의 [ɛ:] 로 발음하고 한국어의 /꺆/[ɛ]를 미얀마어의 [ɛ]로 발음한다. 미얀마어는 성조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한국어는 혀의 높낮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 : /ne/[ne] 네, /ə:tɕe/[ə:tɕe] 어제, /meta/[meta] 메다

미얀마어 : /p'ɛ:/ (ပ)[p'ɛ:]콩, /θɛ:/ (ဇ)[θɛ:] 모래, /bɛ:/ (ဘ)[bɛ:] 오리

한국어 : /pɛ/[pɛ] 배, /mɛu/[mɛu] 매우, /kɛmi/[kɛmi] 재미

미얀마어: /k'ɛ/(က)([k'ɛ])(위험에서)구하다, /θɛ/(ဇ)([θɛ])나르다,

/p'ɛ/(ပ)([p'ɛ]) 제외시키다.

(4) 한국어의 /ㅏ/와 미얀마의 /a/

한국어의 /ㅏ/[a]와 미얀마어의 /a/는 같은 평순저모음인데 혀의 앞뒤 위치가 다르다. 미얀마어의 /a/는 한국어의 ㅏ[a]보다 앞쪽에서 나는 발음이고 입을 조금 작게 벌린다.

한국어 : /apətɕi/[apətɕi] 아버지, /ai/[ai] 아이, /au/[au] 아우

미얀마어 : /la/(လ)([la]) 오다, /na/(န)([na]) 아프다, /ŋa/(ဂ)([ŋa]) 나

(5) 한국어의 /ㅚ/와 미얀마의 (자음+복합자음+/ɛ/)

한국어의 ㅚ[ö]는 미얀마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ㅚ [ö]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자음+복합자음 (자음+wa. hswe:)에다가/ɛ/모음을 붙여서 [자음+wɛ]로 발음한다.

한국어 : /ö/[ö]외, /nö/[nö]뇌, /sö/[sö] 쇠

미얀마어 : /lwɛ/(လွယ်)[lwɛ] 쉽다, /nwɛ/(နွယ်)[nwɛ] 덩굴,
/θwɛ/(သွယ်)[θwɛ] 가늘다

4.3.1.2 한·미 후설모음

(6) 한국어의 /ㅡ/

한국어의 ㅡ[i]는 입술을 펴고 후설을 연구개에 바짝 접근시켜 조음한다. 미얀마어에는 이와 비슷한 모음이 없다.

(7) 한국어의 /ㅚ/와 미얀마어의/ɔ/

한국어의 ㅚ[ɛ]는 입술을 조금 펴고 중설을 연구개의 앞부분에 접근시키고 조음한다. 미얀마어의 /ɔ/는 입술 모양이 둥글고 후설 중·저모음으로 발음한다.

한국어 : /ə:mə:ni/ 어머니, /ə:tɕe/ 어제, /ə:pu/ 어부

미얀마어: /t'ɔ/(တော်)[t'ɔ] 똑똑하다, /kʰɔ/(ခေါ်)[kʰɔ] 부르다,
/tɕʰɔ/(ချော်)[tɕʰɔ] 미끄럽다

(8) 한국어의 /ㅜ/와 미얀마어의/u/

한국어의 ㅜ[u]와 미얀마어의 u[u]는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와 높이 및 입술 모양이 아주 비슷하다.

한국어 : /tubu/[tubu] 두부, /pubu/[pubu] 부부,
/kudu/[kudu] 구두

미얀마어 : /ku/(ကု)[ku] 돕다, /t'u/(တူ)[t'u] 장도리/갈다,
/k^hu/(ခု)[k^hu] 애벌레

(9) 한국어의 /ㅛ/와 미얀마어의/o/

한국어의 ㅛ[o]는 후설 원순 중모음이다. 미얀마어의 o[o]는 후설 원순 중고모음이다. 한국어 /ㅛ/의 원순성이 미얀마어 /o/보다 강하다.

한국어 : /oi/[oi] 오이, /kogi/[kogi] 고기, /so/[so] 소

미얀마어 : /t'o/(တို)[t'o] 짧다, /k^ho/(ခု)[k^ho] 비둘기,
/t^ho/(တို)[t^ho] 달다

4.3.2. 이중모음

이중모음	한국어	미얀마어	비교
ㅣ (/y/)계	ㅑ [ya], ㅓ [yə], ㅕ [yo], ㅗ [yu], ㅛ [ye], ㅜ [yɛ]	[ya], [yə], [yo], [yu], [ye], [yɛ]	한국어는 모음이지만 미얀마어는 (자음+모음) 이다.
ㅓ (/w/)계	ㅘ [wa], ㅚ [wə], ㅞ [wɛ], ㅟ [we]	[wa], [wə], [wɛ], [we]	
ㅡ (/i/)계	ㅟ [iy]	∅	
성문으로 발음된 모음	∅	/eiʔ/, /aiʔ/, /auʔ/, /ouʔ/	
비음	∅	/ein/, /ain/, /aun/, /oun/	

<표 27>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대조

이중모음을 구성할 때 관여하는 /ㅣ/와 /ㅓ/모음을 국제음성기호로 각각 /y/(또는 /j/)와 /w/로 표시한다. 이를 반자음(semi-consonant) 또는 활음(glide)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어의 이중모음 ㅣ (/y/)계 이중모음 ㅑ [ya], ㅓ [yə], ㅕ [yo], ㅗ [yu], ㅛ [ye], ㅜ [yɛ]와 ㅓ (/w/)계 이중모음 ㅘ [wa], ㅚ [wə], ㅞ [wɛ], ㅟ [we]를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잘 발음한다. 미얀마어에는 활음+모음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의 모음은 ㅡ (/i/)계 이중모음 ㅟ [iy]이다.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ei/, /ai/, /au/, /ou/은 4개가 있다.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하려면 초성에는 자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종성에는 성문폐쇄음/ʔ/이나 비음과 같이 성조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미얀마어에서는 이중모음을 발음할 수 없다.

예를 들면 /lei/이나/tei/는 발음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모음/ei/는 초성에서 자음이 있든 없든 종성에서는 성문폐쇄음/?/으로 발음하면 ‘[eiʔ]가방, [leiʔ]거북이, [teiʔ]조용하다’ 등 의미 있는 단어로 발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중모음/ei/는 초성에서 자음이 있든 없든 종성에서는 비음과 같이 성조 하나씩으로 발음하면 ‘[ein.], [ein]집, [ein:]’, ‘[tein.], [tein]구름, [tein:]기울다’, ‘[lein.]구르다, [lein]거짓말하다, [lein:]바르다’ 등 의미 있는 단어로 발음할 수 있다.

미얀마어의 특징은 이중모음을 그대로 발음할 수 없고 뒤에 성문폐쇄음이나 비음과 성조 하나가 있어야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4.4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습득 난이도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에는 한국어의 단모음 [i]가 없어서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한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단모음 [i]를 미얀마어의 있는 [u.] 1성으로 대응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u.] 1성을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약간 돌출이 되지만 [i]의 경우에는 입술이 돌출되지 않는다. 입모양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식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어의 [ü]는 미얀마어의 모음에는 없지만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ü]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자음+복합자음 wa. hswe:[w] + 모음 [i]) 합

쳐서 발음된 [wwi]로 대응해서 발음한다. 거의 비슷해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한국어의 [ö]도 미얀마어의 모음에는 없어서 [ü]를 발음하는 방법대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ö]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자음+복합자음 wa. hswe: [w] + 모음 [ɛ]) 합쳐서 발음된 [wwɛ]로 대응해서 발음한다.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미얀마어의 /e/는 한국어에는 없다. 미얀마어의 /e/는 한국어 /e/와는 다르다. Aung Win Naing(2000)에는 미얀마어의 /e/는 영어의 bay[ber], day[der], hay[her]와는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e]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ɛ:] 로 발음하고 한국어의 /ㅐ/[ɛ]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ɛ]로 발음한다. 한국어의 단모음[e]와 [ɛ]는 혀의 높낮이에서 차이가 있는데 미얀마어의 [ɛ]는 성조 차이만 있는 뿐이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a]를 발음할 때 조금 어려울 것이다. 한국어의 [a]와 미얀마어의 [a]는 같은 평순 저모음이지만 차이점은 한국어의 [a]는 후설모음이고 미얀마어의 [a]는 전설모음이다.

한국어의 ㅏ[a]는 입술을 조금 펴고 중설을 연구개의 앞부분에 접근시키고 조음한다. 미얀마어의 /ɔ/는 입술 모양이 둥글고 후설 중·저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a]를 발음할 때 조금 어

려움을 느낄 것이다.

한국어의 ㅛ[o]는 입술을 둥글리고 후설을 연구개에 접근시켜 조음한다. 미얀마어의 /o/는 입술 모양이 둥글리고 후설 중고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o]를 발음할 때 조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한국어의 단모음[i], [u]은 미얀마어의 단모음[i], [u]의 발음과 차이가 없어서 다른 단모음들보다 발음하기 쉬운 편이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ㅟ[iy]이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ㅟ[iy]를 발음할 때 미얀마어의 (자음+복합자음 wa. hswe: [w] + 모음 [i]) 합쳐서 발음된 [awi]로 대응해서 발음한다.

이중모음 ㅣ (/y/)계 이중모음 ㅟ [ya], ㅠ [yø], ㅡ [yo], ㅢ [yu], ㅣ [ye], ㅤ [yɛ]와 ㅞ (/w/)계 이중모음 ㅟ [wa], ㅠ [wø], ㅡ [wɛ], ㅢ [we] 을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잘 발음할 수 있다. 미얀마어에는 활음+모음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ei/, /ai/, /au/, /ou/은 4개가 있다.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하려면 성문폐쇄음/?/이나 비음과 같이 성조 하나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미얀마어에서는 이중모음을 발음할 수 없다.

모음에 대한 예측 결과 미얀마인 학습자에게는 [e], [ɛ]를 발음할 때는 가장 어려우며 [i], [ü], [ö], [iy] 를 발음할 때는 아주 어려울 것을 예측한다.

[a],[ə],[o]를 발음할 때는 조금 어렵고 [i], [u]를 발음할 때는 쉬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모음	미얀마어	-	한국어	난이도 계층도	차이의 유무	상대적 난이도
단모음	[ɛ]	-	[e],[ɛ]	분열	차이 있음	가장 어려움
	∅	-	[ɪ]	새로운 것	차이 있음	아주 어려움
	∅	-	[ü]			
	∅	-	[ö]			
	[e]	-	∅	부재범주	차이 있음	어려움
	[a]	-	[a]	혀의 위치	차이 있음	조금 어려움
	[ɔ]	-	[ə]	입술 모양	차이 있음	
	[o]	-	[o]	혀의 높낮이	차이 있음	
	[i]	-	[i]	대응	차이 없음	쉬움
	[u]	-	[u]			
이중모음	∅	-	-[ɪy]	새로운 것	차이 있음	아주 어려움
	/ei?/, /ai?/, /au?/, /ou?/	-	∅	부재범주	차이가 있음	어려움
	/ein/, /ain/, /aun/, /oun/	-	∅			
	[ya], [yə], [yo], [yu], [ye], [yɛ],	-	[ya], [yə], [yo], [yu], [ye], [yɛ]	대응	차이가 없음	쉬움
	[wa], [wə], [wɛ], [we]	-	[wa], [wə], [wɛ], [we]			

<표 28>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에 대한 예측 결과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을 음운론적으로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또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예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어 음운체계와 미얀마어 음운체계를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대조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음소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동일한 조음위치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성문음)이다.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조음위치는 치음, 치조경구개음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음방법을 대조해 봤을 때 동일한 조음방법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활음이다. 미얀마어의 마찰음과 비음의 수가 한국어 보다 많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음소는 파열음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음은 /ph, th, kh, p', t', k'/, /ph, th, kh, p', t', k'/이다.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파열음의 평음은 /p, t, k/이고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파열음의 유성 무기음은 /b, d, g/이다. 초성에서 발음할 때 차이가 있다. 한국어 자음체계에는 유성·무성 대립이 없기 때문에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초성에서 파열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해도 이상한 것을 못 느끼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

지만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찰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음은 /s'/, /s'/이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평음 /s, h/과 미얀마어에 존재하는 유기무성음/sh, h/ 은 기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마찰음은 / θ, z, ɕ/이다.

파찰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음은/tch, tɕ'/, /tch, tɕ'/이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평음(무기무성음)/tɕ/과 미얀마어에 존재하는 무기유성음 /dʒ/은 초성에 발음할 때 차이가 있다.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한국 사람의 발음과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비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음은 /m, n, ŋ/, /m, n, ŋ/이고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자음은 /hm, hn, hŋ, hŋ/이다.

유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음은 /l/이고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자음은 /hl/이다. 미얀마어의 /l/는 한국어의 종성에서 나타나는 /l/과 비슷하다. 초성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r/을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l/처럼 발음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한국어의 탄설음/r/는 혀끝을 치조에 닿아 가볍게 한 번 두들겨 내는 소리이다.

자음에 대한 예측 결과 미얀마인 학습자에게는 유음을 발음할 때는 가장 어려우며 파열음(평음), 파찰음(평음), 마찰음(평음)을 발음할 때는 어렵고 파열음(경음, 격음), 파찰음(경음, 격음), 마찰음(경음), 비음, 활음을 발음할

때는 쉬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음소체계는 단모음체계와 이중모음체계로 구분하고 살펴봤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체계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모음은 /ɪ, ʏ/, /i, u/이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단모음 /ɯ, ʌ, ɔ/는 미얀마어에 없지만 성조가 있어서 비슷한 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ɔ/는 /ʏ/소리를 내는 상태에서 입술을 옆으로 펴서 발음한다. /ɔ/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돌출되지 않는다.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모음은 /e/이다. 영어 발음의 이중모음[eɪ]과 비슷하다. 한국어의 모음 /ɛ, ɐ/는 미얀마어의 모음 /ɛ:, ɛ/로 발음한다. 한국어의 모음 /a/는 후설 평순 저모음으로 발음하고 미얀마어의 모음 /a/는 전설 평순 저모음으로 발음한다. 한국어의 모음 /ɨ/는 후설 평순 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미얀마어의 모음 /ɔ/는 후설 원순 중저음으로 발음한다. 한국어의 /ɔ/는 후설 원순 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미얀마어의 /o/는 후설 원순 중고모음으로 발음한다.

또한 이중모음체계를 살펴봤을 때 한국어 이중모음과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다르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모두 11개가 있으며 하향이중모음/ɨ-/를 제외하고는 상향이중모음‘활음+모음’으로서 만들었다. 미얀마어에는 하향이중모음/ɨ-/는 없다. 미얀마어에는 활음이 있어서 ‘활음+모음’으로 만들어서 발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이중모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얀

마어의 이중모음 /ei/, /ai/, /au/, /ou/은 4개가 있다.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하려면 성문폐쇄음/ʔ/이나 비음과 같이 성조 하나가 있어야 된다.

모음에 대한 예측 결과 미얀마인 학습자에게는 /e/, /ɛ/를 발음할 때는 가장 어려우며 /i /, /ü/, /ö/, /iy/를 발음할 때는 아주 어려울 것을 예측한다. /a/, /ə/, /o/를 발음할 때는 조금 어렵고, /i/, /u/를 발음할 때는 쉬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을 대조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에 대응시켜 발음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발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음소체계만 대조해서 오류 예측만 했기 때문에 실제의 발음과 동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발음하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인 학습자의 실제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다. 앞으로 미얀마인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발음 지도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구현옥(2010), 『국어 음운학의 이해』한국문화사.

권성미(2009), 『한국어 발음습득 연구』, 박이정.

김길동(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경(2012), 중국인의 한국어 모음 습득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옥(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찬연(2013) 『표준 발음법의 이해』, 월인.

노금송(2000),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교육,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연희(2001),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진원(2001), 한 . 중 여성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주채(2003),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범류(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닿소리 음소 및 그 변이음에 대한 조음 음성학적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여학봉(2009), 한.중 자음 대조를 통한 중국인 한국어 자음 발음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숙(2007),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음소 및 변이음의 대조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장천매(2007), 대만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모음 발음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211-227 쪽

조가(2006), 한 . 중 음운체계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조재은(2007), 한국어와 중국어 음소대조분석을 통한 중국어 발음지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월(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 연구, 건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찌우티투튀(20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금단(2002), 중국어와 한국어의 자음 대조 연구, 성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추이진단(2002),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20 호, 이중언어학회, 309-393 쪽

허용 . 김선정(2011),『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허용 .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Armstrong, Liliias E. and Pe Maung Tin (1925) Burmese Phonetic Reader. University of London Press. [Burmese Phonetic Reader translated to Myanmar Language by U Shwe Thwin(1969)]

Aung Win Naing(2000).『 An Introductory Course in Myanmar Language 』,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Yangon Department of Myanmar) 외국어 대학교출판사.

H. Douglas Brown(2011),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제 5 판, Pearson Education Korea, Ltd.

Htun Myint (2007). 『Phonetics』, YarPyae 출판사.

Mg Khin Min(DaNuPhyu)(2012),『 Myanmar-sakar Myanmar-sar YotePoneHlwar (Language and Literature of Myanmar)』 , Myanmar

Language Commission 출판사.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Myanmar Grammar』,
Myanmar Language Commission 출판사.

Thein Tun(2007), 『Acoustic Phonetics and The Phonology of the
Myanmar Language 』, Shweyimyintmyat 출판사.

Thein Tun(2012), 『The subtleties of the Myanmar Language, Grammer,
segments and prosody in the sound system of the language and
spelling』, Lat Moe Swe 출판사.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운체계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또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할 때 모국어의 발음 체계에 대응시켜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 학습을 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대조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학습자의 어려움을 예측하여야 오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을 비교하였는데 자음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동일한 조음위치로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성문음)이다. 조음위치 중에 치음, 치조 경구개음은 미얀마어에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동일한 조음방법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활음이다. 미얀마어의 마찰음과 비음과 같은 자음 수가 한국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모음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 흔히 볼 수 있는 단모음으로는 /ɪ, ʌ/, /i, u/ 등이 있고 한국어에 존재하는 단모음 /ɨ, ɯ, ㅡ/는 미얀마어에 없지만 미얀마어는 성조가 있어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는 비슷한 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의 이중모음과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모두 11 개가 있지만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8 개만 있다.

자음에 대한 예측 결과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유음을 발음할 때 가장 어려우며 파열음(평음), 파찰음(평음), 마찰음(평음)을 발음할 때에는 어렵지만 파열음(경음, 격음), 파찰음(경음, 격음), 마찰음(경음), 비음, 활음을 발음할 때에는 쉬운 것을 예측하였다. 모음에 대한 예측 결과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e],[ɛ]의 발음이 가장 어려우며 [i], [ü], [ö], [iy]를 발음할 때는 아주 어려울 것을 예측한다. 그리고 [a], [ə], [o]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고 [i], [u]를 발음할 때는 쉬울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자세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발음 시에 나타나는 오류를 예측했기 때문에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 아울러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